

가덕신공항 부지 조성 공사, 마침내 응찰 업체 나타났다

국토부, 사전심사 2차 입찰 마감 현대건설 초대형 컨소시엄 응찰 시공능력 30위 내 업체 다수 참여 동원개발 등 지역 14개사도 포함 1곳만 입찰 뎀 수의계약 가능성

가덕신공항 부지 조성 공사에 참여할 건설업체를 찾는 '사전심사' 2차 입찰에서 현대건설 컨소시엄 1곳이 응찰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건설 컨소시엄에는 시공능력평가 3위인 대우건설이 함께 한다. 또 금호건설 등 시공능력평가 30위 내의 건설사들이 다수 참여했다. 지역 건설사는 14곳이 포함됐다.

24일 국토교통부와 조달청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에 마감된 가덕신공항 부지 조성 공사 사전심사 재입찰에서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응찰했다. 가덕신공

항 부지 조성 공사는 설계시공 병행 방식으로 진행되는 공사로, 먼저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번에 국토부가 입찰한 부분은 바로 사전심사다. 국가계약법상 2차 입찰에서도 1곳만 응찰할 경우, 수의계약을 할 수 있게 돼 있다. 국토부는 수의계약을 할지 여부를 조만간 결정할 계획이다.

현대건설은 대우건설, 금호건설, HL, D&I 한라, 코오롱글로벌, 동부건설, KCC건설, 쌍용건설, 한양, 효성중공업 등과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하게 된다. 현대건설은 전체 지분 중 33%를 참여하고 대우건설은 24%, 나머지 업체는 각 4%다. 4%는 최소 지분율이다. 현대건설과 대우건설의 지분율을 합하면 57%에 달해 두 업체가 주도하는 컨소시엄이라고 할 수 있다.

지역 업체는 동원개발이 시공능력평가 전국 31위로 가장 규모가 크다. 아울러

동아지질, 대저건설, 대야건설, 대성문 등 모두 14개 부울경 지역 업체가 참여하게 된다. 그러나 지역 업체 지분은 모두 11%로 14개 사가 참여하는데도 적은 편이다. 엔지니어링사에서는 동부엔지니어링, 이산, 다산건설컨트, 삼보기술단 등이 포함돼 있다.

국토부는 현대건설 컨소시엄 1곳만 응찰함에 따라 앞으로 △수의계약 △재입찰 △계약조건 변경 후 입찰 등 3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현재로서는 재입찰을 해도 다른 곳에서 응찰할 가능성이 적어 수의계약이 유력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계약조건 변경 후 입찰을 할 경우, 입찰 방법에 대한 심의를 다시 해야 해 시간이 상당히 늦어질 우려가 있다.

가덕신공항 공사는 건설사들 입장에서 초대형 일감인데다 앞으로 해외 공항 공사 입찰에서 중요한 경력으로 인정될 수 있기에 누구나 노릴만한 공사다. 그런

데도 건설사들의 참여가 예상 외로 적은 것은 공사 규모가 크고 난이도도 높아 리스크에 대한 우려 때문으로 보인다. 아울러 최근 늘어난 공사비, 자재비 등도 부담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건설업계에서는 시공능력평가 10위 내의 업체가 3곳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구해 왔다. 하지만 국토부는 조달청 규정상 시평 10위 내에는 2곳밖에 허용이 안 된다며 반대했다. 이에 따라 2차 입찰에서도 아무도 응찰하지 않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었지만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참여하게 됨으로써 공사가 계속 늦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게 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본래 공사 입찰을 6월 말에 하려다가 5월 17일로 앞당겼기 때문에 재공고를 냈지만 입찰이 그렇게 밀리지 않는다"며 "가덕신공항 공사 기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택준 기자 casiopea@busan.com



2022년 그리스 아테네에서 개최된 '국제우주연구위원회(COSPAS) 2022' 총회 현장 모습. 우주항공청 제공

세계 최대 우주과학자들의 올림픽 내달 부산 벡스코에서 화려한 개막

국제우주연구위원회 학술총회 60개국 3000여 명 참석 예정 관련 분야 한국 위상 제고 기대

미국 항공우주청(NASA), 유럽우주청(ESA)을 비롯한 각국의 우주개발 기관과 세계 유수의 우주과학자들이 다음 달 대거 부산에 모인다.

우주항공청은 우주과학 분야 세계 최대 규모 국제학술회인 '국제우주연구위원회(COSPAR, Committee on Space Research) 총회'가 다음 달 13일부터 21일까지 9일간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된다고 24일 밝혔다.

COSPAR(코스파)는 격년마다 대륙을 순환하며 열리는데,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COSPAR 2024'로 불리는 이번 학술총회는 약 60개국 총 3000여 명의 우주과학자들이 부산에 모이는 행사로 NASA, ESA, 한중일 우주 분야 리더 및 2800여 명의 학술총회 참가자, 200여 명의 연계 행사 참석자 등이 부산을 찾는다.

COSPAR 2024는 개회식, 우주국원학회의, 초청 및 대중 강연, 연계 행사, 교사 연수, 전시회 및 약 3150편의 학술발표 등으로 꾸러진다. 구체적으로는 우리나라 우주항공청을 비롯해 NASA, ESA 등 각국의 우주개발 기

관이 참석해 우주개발 방향과 국제협력 정책을 논의한다. 한국을 비롯해 미국 등 주요 우주 선진국들의 우주과학 분야 연구개발 현황과 계획 발표, 다누리호 등 최신 우주탐사 임무의 결과 발표와 리더급 우주과학 연구자들의 초청 강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특히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인 새뮤얼 팅(Samuel Ting)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석좌교수, NASA 화성 토양 회수 프로그램 책임자 마키사 와드하 박사 등은 대중을 상대로 강연한다. 한국천문연구원과 한국항공우주연구원, NASA,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컨텍, 이노스페이스 등 국내외 주요 연구 기관 및 우주 산업체들의 전시회도 함께 열린다.

윤영빈 우주항공청장은 "우주과학 분야 세계 최대 규모의 국제학술회가 한국에서 열릴 만큼 한국의 우주 분야 위상이 높아졌다"며 "이번 행사를 계기로 우주항공청 출범을 널리 홍보하는 한편 국제 우주협력 네트워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국제협력 활동을 주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전 총회는 2022년 그리스 아테네에서 개최됐으며, 다음 총회는 2026년 이탈리아 피렌체에서 개최된다. 송현수 기자 songh@



가덕신공항 부지조성공사 재입찰에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응찰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덕신공항 원경 예상도.

가덕신공항건설공단 제공

반도체가 이끈 올해 수출, 6900억 달러로 사상 최대 기대감

지난해보다 9.1% 늘어날 전망

반도체와 자동차 등 주력 품목의 수출 호조에 힘입어 올해 우리나라 수출이 6900억 달러로 사상 최대치를 경신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24일 발표한 '2024년 상반기 수출입 평가 및 하반기 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수출이 전년 대비 9.1% 증가한 연간 6900

억 달러로 사상 최대 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예측했다. 수입은 1.0% 증가한 6490억 달러로, 무역수지는 410억 달러 흑자를 낼 것으로 내다봤다. 올해 수출 증가율 전망은 무역협회가 지난해 말 제시한 7.5%보다 1.6%포인트 높다. 올해 수출 예상액은 정부가 제시한 연간 수출 목표인 7000억 달러에 근접했다.

보고서는 올해 수출 성장의 주된 동력으로 반도체를 포함한 IT 기기와 자동차,

선박 등 주력 품목의 수출 선전을 꼽았다. 반도체 수출은 인공지능(AI) 산업 급성장, 최대 소비 시장인 중국의 IT 제품 수요 증가의 영향으로 31.8%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컴퓨터(53.0%), 디스플레이(10.3%), 무선통신기기(8.0%) 등도 글로벌 IT 경기의 빠른 회복세가 수출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됐다.

작년 한국 수출을 지탱한 자동차는 전 기차 수요 정체 등의 우려에도 하이브리드차와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중심으로 성장세를 유지해 3.7%의 수출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무역협회는 예측했다. 선박(14.3%)도 하반기 중 유럽, 아시아 등으로 액화천연가스(LNG)선과 대형 컨테이너선 등 고부가가치 선박 인도가 예정돼 우호적 수출 여건이 이어질 것으로 무역협회는 내다봤다.

무역협회는 한국의 13대 주력 품목 수출이 대부분 증가하겠지만, 철강은 상반기 수출 단가 하락과 수요 부진 등 불안한 수급 상황 등의 여파로 소폭 감소(-0.8%)할 것으로 봤다. 송현수 기자

3 Rentruck 소자본·무점포 재테크 사업-렌트럭

2,000만원 투자
트럭 렌탈 재테크 수익사업

2년간 트럭임대료 133만원 받자!

★ 렌트럭이란? ★ 운수회사에서 투자자의 투자금(2,000만원)으로 트럭을 구입해서 운수회사에 속해 있는 운행기사에게 임대해 주고 투자자에게 매달 임대료 이자수익과 투자원금을 지급하는 신개념 트럭 렌탈시스템입니다.

1기, 2기, 3기, 4기 투자자 성황리에 마감!
5기 투자자를 모집합니다!

10대 한정

연금처럼 매달!
이자와 투자원금을 동시에~

지난 3년간 저희 렌트럭을 성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자 50만원 + 투자원금 83만원 = 매월 133만원 2년간 지급

안전성 확보
관공서 근저당 100%채권확보

렌트럭 운영방침

- ▶ 임대트럭 차량관리는 운수회사가 정기적 관리.
- ▶ 2년 단위로 계약체결 장기간 계속 연장 가능.
- ▶ 모든 행정업무, 비용은 운수회사가 부담.

실제 근저당 설정된 관공서 근저당 서류

임대사업의 안정과 상생을 추구하는
렌트럭사업본부

상담 문의 **02)6296-3004**
010-5298-1222 (24시간 친절 상담)